

축 사

어려운 시기에 관음사 주지로서 지난 2년여 동안 진력을 다한 성효스님의 노고를 격려하며, 제주불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오랫동안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 오신 종호스님의 회주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처럼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오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스님이 이룬 일생의 공덕을 함께 공경하며 덕화를 나누는 것은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회주로 모시게 되어 이제 관음사만이 아니라 제주라는 커다란 산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는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불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종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화합하는 일과 제주도민의 불심을 북돋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호스님은 지난 30여년 동안 제주시민의 생활상과 문화적 관습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종단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면서 정법을 심기위해 많은 노력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대중과 함께하는 정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법의 길에 들게 했으며, 참 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더불어 스님께서는 평소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해 오셨기에, 제주도에 계시면서도 종단 대소사를 두루 읽으시며 채신과 안정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회주스님의 오랜 수행력과 술선수법을 잘 받들어 모든 사부대중이 신

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 제주불교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모든 대중이 화합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청정한 제주불교가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이룬 노고를 불제자로서 당연한 책무로 여기시는 스님의 겸손
과 소탈함은 제주불교의 큰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회주 추대를 깊은
마음으로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7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